

『黃帝內經太素』에 나타난 腎間動氣說에 대한 小考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白裕相*

A Study on the Movement Qi between kidneys(腎間動氣) in *Huangdineijingtaisu*(黃帝內經太素)

Baik You-s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Movement Qi between kidneys(腎間動氣) in *Huangdineijingtaisu*(黃帝內經太素) is researched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Huangdineijingtaisu* and *Nanjing*(難經)

Methods : The annotations related to Movement Qi between kidneys in *Huangdineijingtaisu* were selected and analyzed to overview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definition.

Results : The meaning of Movement Qi between kidneys in *Huangdineijingtaisu*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Nanjing* basically, however, Yang Shangshan(楊上善) suggested additional new meanings including penetration meridian(衝脈), pass way for vital energy(氣街), visceral exhaustion pulse(眞藏脈) and so on.

Conclusions : The reason that Yang Shangshan explained the circulation of primordial energy(原氣) focusing on penetration meridian is that he tried to connect the actual functions about Movement Qi between kidneys to clinical treatment than the ideal concept in *Nanjing*.

Key Words : *Huangdineijingtaisu*(黃帝內經太素), Movement Qi between kidneys(腎間動氣), *Nanjing*(難經), Yang Shangshan(楊上善)

I. 序 論

楊上善이 당대 高宗 연간인 7세기말에 저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黃帝內經太素』는 중국에서 亡佚되

었다가 19세기에 日本에서 다시 鈔本이 발견된 이후로 『黃帝內經』에 대한 주요한 연구 자료로 인식되어 왔다. 그와 동시에 楊上善의 注釋 속에는 『黃帝內經』뿐만 아니라 당대에 접할 수 있었던 여러 의서 및 의학지식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黃帝內經太素』에 담긴 楊上善의 注釋 가운데 이전의 『難經』에서 제시한 腎間動氣와 관련된 부분들을 모아 분석함으로써 『難經』의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Tel : 02-961-0326
Email : baikys@khu.ac.kr
Received(27 July 2016), Revised(17 August 2016), Accepted(18 August 2016).

腎間動氣說이 후대에 어떻게 전해져 내려갔는가의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難經』의 腎間動氣說에 대한 연구는 주로 命門學說과 연관되어 부수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腎間動氣가 先天의 原氣로서 兩腎 間에 자리 잡고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醫家들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었으나 그에 비하여 주로 命門과 相火, 三焦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腎間動氣 개념 자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太素』 관련 논문 중에서 錢澤南의 ‘黃帝內經太素學術思想研究’¹⁾에서는 『太素』에서 말한 命門과 腎間動氣의 연결을 고찰하면서 주로 命門學說에 대한 諸家들의 주장을 설명하였으나 『太素』 자체의 腎間動氣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李相協의 ‘黃帝內經太素의 特徵 및 楊上善의 醫學理論에 대한 研究’²⁾에서는 楊上善이 命門과 腎藏志, 腎間動氣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평가하였는데 보다 세부적인 분석과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命門學說 관련 논문 중에서 은석민의 ‘命門相火學說에 대한 의과학적 고찰’³⁾에서 楊上善의 命門學說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면서 腎間動氣 개념을 命門과 연결시킨 점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그밖에 金振鎬의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⁴⁾는 주로 『難經』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張磊 등의 ‘腎氣與元氣, 原氣, 生氣, 腎間動氣, 眞氣關聯辨析’⁵⁾, 盛明旭 등의 ‘淺析難經的命門與腎間動氣的關係’⁶⁾ 등에서는 주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괄하여 『太素』 관련 내용은 연구가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太素』 관

련 연구 성과 속에서는 腎間動氣에 대하여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으며, 命門學說 관련 연구 속에서는 역시 『太素』의 腎間動氣說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黃帝內經太素』에 담겨있는 『難經』의 특징적인 의학 이론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수용된 것들로서 『難經』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太素』가 오랫동안 亡佚되었다가 근세에 들어와 발견되어 그 공백기 동안에 다른 의서나 의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존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속에 담긴 내용의 희소성과 가치는 새롭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문의 교정은 錢超塵의 『黃帝內經太素新校正』(2006)⁷⁾, 左合昌美의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2009)⁸⁾ 등을 바탕으로 原鈔本, 盛文堂本, 蕭延平本 등을 참고하였다.

II. 本 論

『黃帝內經太素新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原鈔本, 盛文堂本, 蕭延平本 등을 참고하여 『黃帝內經太素』을 校勘하고 그 속에 담긴 楊上善의 注釋 가운데 腎間動氣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석한 후 내용을 분석하였다. 『難經』 이후로 내려오는 腎間動氣의 기본적인 개념과 衝脈 및 氣街, 宗氣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맥진법의 眞藏脈 발현과 관련된 내용, 기타 상하의 氣 조절과 精, 神과의 관련성 등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六府者, 陽也. 人之命門之氣, 乃是腎間動氣, 爲五藏六府十二經脈性命根, 故名爲原. 三焦者, 原氣之別使, 通行原之三氣, 經營五藏六府, 故原者三焦之尊稱也. 不應五時, 與陽經而合以應其數, 故有六六三十六輸也.(輸穴·變輸)⁹⁾

- 1) 錢澤南. 黃帝內經太素學術思想研究. 北京中醫藥大學大學院. 2014. p.59.
- 2) 李相協. 黃帝內經太素의 特徵 및 楊上善의 醫學理論에 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2009. pp.102-104.
- 3) 은석민. 命門相火學說에 대한 의과학적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4). p.4.
- 4) 金振鎬.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 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pp.263-264.
- 5) 張磊, 劉迎迎, 郭偉星. 腎氣與元氣, 原氣, 生氣, 腎間動氣, 眞氣關聯辨析. 遼寧中醫雜誌. 2015. 42(10). pp.1878-1879.
- 6) 盛明旭, 儲全根. 淺析難經的命門與腎間動氣的關係. 中醫藥臨床雜誌. 2012. 24(1). pp.6-7.

- 7)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 8) 左合昌美.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大阪. 讀古醫書岐黃會. 2009.
- 9)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02. “黃帝曰諸原安合, 以致六輸.(五變合於五輸, 原之一輸與何物合.) 岐伯曰原獨不應五時, 以經合之, 以應其數, 故六六三十六輸.” 본문 楊上善의 인용문 바로 앞에 위치한

六腑는 陽이다. 사람의 命門의 氣는 곧 腎間動氣로 五臟六腑와 十二經脈과 性命의 뿌리가 되므로 原이라고 이름하였다. 三焦는 原氣의 別使로 原의 三焦之氣를 通行시키고 五臟六腑를 經理하므로 原은 三焦의 宗칭이 된다. 五時에 응하지 않고 陽經과 더불어 合하여 그 數에 응하므로, 6에 6을 곱하여 三十六輸를 둔다.

『太素輸穴變輸』에서 腎間動氣가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의 뿌리가 되어 原이라 불린다고 한 것은 『難經八難』에서 “謂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이라 한 것과 동일한데¹⁰⁾ 『太素』에서는 腎間動氣를 다시 命門의 氣라고 규정하였다. 그 이유는 『難經』에서 命門이 비록 兩腎 중 右腎에 해당하여 腎臟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으나¹¹⁾ 한편으로 우리 몸의 原氣가 매어있는 바라고 하였으므로, 命門을 통하여 나오는 氣는 근본적으로 곧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의 뿌리가 되는 原氣인 것이고 그 原氣가 바로 腎間動氣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命門 자체와 腎間動氣를 동일시한 것은 아니며 原氣인 腎間動氣가 命門之氣의 근본이 됨을 강조한 것이다.

『太素』에서는 命門이 右腎이지만 통틀어 腎이라고 칭하여¹²⁾ 命門이 腎에 귀속된다고 보아서 『難經

』의 左腎右命門說을 따랐다. 나아가 左腎은 藏志를 하고 右命門은 藏精을 하여 五臟을 길러준다고 하였는데¹³⁾ “命門藏精, 故曰腎藏精者也.”이라 하여 命門이 藏精하는 것이 바로 통상 말하는 腎藏精이라 하였다. 이는 『難經三十六難』에서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이라 한 것¹⁴⁾에서 男子의 藏精을 확대 해석한 것일 수 있다. 楊上善은 또한 “八十一難, 精亦名神, 故有七神.”이라 하여 『難經三十四難』에서 神과 精을 동일하게 본 예를 들어서 腎에 머무는 精과 神이 동일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앞에서 腎間動氣를 性命의 뿌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 楊上善은 『太素診候之三脈論』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怯, 心不足也. 腎氣虛, 故腎間動氣微弱, 致使膀胱水道不得通利也. 腎間動氣, 乃是身形性命之氣, 眞氣不足, 動形取氣, 故曰形氣乘也.(診候之三脈論)¹⁵⁾

p.86. “人腎有二, 左爲腎藏, 右爲命門.(藏府之一五藏精神)”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04. “腎在二枚, 左箱爲腎藏志也, 在右爲命門藏精.(藏府之一藏府氣液)”

13)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4. “難命門藏精, 通名爲腎.(攝生之二九氣)”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86. “命門藏精, 精者五藏精液, 故五藏藏精.(藏府之一五藏精神)”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03. “精, 謂命門所藏精也, 五藏之所生也. 五精有所不足, 不足之藏虛而病也. 五精有餘, 所竝之藏亦實而病也. 命門通名爲腎, 肝之母也, 母實竝子, 故爲愛也.(藏府之一藏府氣液)”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66. “命門所藏, 謂之精也.(身度-腸度)”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505. “腎有一枚, 在左爲腎, 在右者爲命門. 腎以藏志, 命門藏精, 故曰腎藏精者也. 八十一難精亦名神, 故有七神.(補瀉虛實補瀉)” 楊上善은 『內經』에서 말하는 腎藏精을 곧 命門藏精으로 보았다.

14) 滑壽. 難經本義. 臺南. 世一書局. 1981. p.82.

15)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373. “夫浮而弦者, 腎不足也.(腎脈沈石, 今反弦浮, 故腎不足也.) 沈而石者, 是腎氣內着也.(腎脈微石, 是其平也. 今沈而復石, 是腎眞脈, 無有胃氣, 內着骨髓也.) 怯然少氣, 是水道不得, 形氣索.”

『太素』의 원문 내용을 참고로 표시하였음. 괄호 안은 『內經』 원문에 대한 楊上善의 注釋이며 이하 각주의 형식도 모두 동일함.

10) 滑壽. 難經本義. 臺南. 世一書局. 1981. p.27. “諸十二經脈者, 皆係於生氣之源. 所謂生氣之源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難經八難)”

滑壽. 難經本義. 臺南. 世一書局. 1981. p.126. “臍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臟六府. 原者, 三焦之尊號也, 故所止輒爲原.(難經六十六難)”

11) 滑壽. 難經本義. 臺南. 世一書局. 1981. p.82.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故知腎有一也.(難經三十六難)”

滑壽. 難經本義. 臺南. 世一書局. 1981. p.86. “然五藏亦有六藏者, 謂腎有兩藏也. 其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 謂精神之所舍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其氣與腎通, 故言藏有六也.(難經三十九難)”

12)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겁이 나는 것은 心이 부족한 것이다. 腎氣가 허하므로 腎間의 動氣가 미약해져 방광의 水道가 잘 통하지 않게 된다. 腎間의 動氣는 곧 형체와 목숨[性命]의 기인데 眞氣가 부족하므로 형체를 움직여 기를 취하게 되니, 그러므로 形氣가 올라 탄다고 하였다.

性命이라는 표현은 『靈樞本藏』에서 “人之血氣精神者，所以奉生而周於性命者也.”라고 한 것¹⁶⁾에서 유래하였는데, 楊上善은 형체를 가진 몸과 대비되는 목숨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腎間動氣가 『難經』에서 말한 대로 사람의 生命이며 守邪之神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性命의 뿌리로 본 것이다. 楊上善은 眞氣가 부족해지면 오히려 形體를 움직여서 氣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形體의 氣가 眞氣보다 過盛하게 된다고 보았다.

十二原과 관련하여 腎間動氣와 三焦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 『太素九鍼之一諸原所生』에 나오는데 『太素輸穴變輸』의 내용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三焦가 原氣를 퍼뜨리는 別使로서 배꼽 아래에 있는 腎間動氣 즉, 原으로부터 12經脈의 原穴로 氣를 보냄을 말하였다. 原이 三焦의 尊號라는 것은 三焦가 腎間動氣로부터 原氣를 받아서 운행시키므로 대신 높여서 原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는 의미이고 원래 原은 腎間動氣 자체를 말한다는 것이다.

八十難¹⁷⁾, 五藏皆以第三輸爲原¹⁸⁾, 各二, 以爲十原也. 又取手少陰經第三輸二, 爲十二原. 六府皆取井榮輸經四穴之後, 別立一原, 六府各二, 爲十二原. 然則, 五藏六府合有二十四原. 原者, 齊

下腎間動氣,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爲原. 三焦行原氣, 經營五藏六府, 故三焦者, 原氣之別使也, 行氣. 故五藏第一輸, 故第三輸名原, 六府以第四穴爲原. 夫原氣者, 三焦之尊號, 故三焦行原氣, 止第四穴輸名爲原也. 今五藏六府有十二原者, 言五藏六府各有十二原也, 合而言之, 亦有二十四原. 文言六府有十二原者, 後人妄加二字耳.(九鍼之一諸原所生)¹⁹⁾

『八十一難』에 五藏에서 모두 세 번째의 輸穴을 原穴로 여기어 좌우에 각각 두 개가 있으니 ‘十原’이 된다. 또한 手少陰經의 세 번째 수혈 두 개를 취하니 ‘十二原’이 된다. 六府는 모두 井榮輸經의 穴을 이미 취한 후에 별도로 하나의 元혈을 세웠는데, 육부에 각각 두 개가 있으니 ‘十二原’이 된다. 그러한즉 오장육부를 합하면 24개의 元혈原穴이 있다. ‘原’이란 배꼽 아래의 腎間動氣이니 사람의 생명이고 十二經脈의 근본이니, 따라서 原이라 하였다. 三焦는 原氣를 운행하고 오장육부를 경영하므로 삼초는 元기의 별도로 운행하는 것이 되어 氣를 행한다. 그러므로 세 번째 수혈을 原穴이라고 이름하며, 육부에서는 네 번째 혈을 元혈로 삼는다. 무릇 원기라는 것은 삼초의 존칭이므로 삼초는 원기를 순행시키며, 단지 네 번째 수혈을 ‘原’이라 했을 뿐이다. 지금 오장육부에 12개의 元혈이 있는 것은 오장과 육부에 각기 十二原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합하여 말하자면 역시 좌우에 二十四原이 있는 것이다. 원문에 ‘六府有十二原’이라 한 것은 後人이 함부로 두 글자를 더한 것일 뿐이다.

또한 腎間動氣로부터 十二經脈의 原穴로 氣가 선포되는 과정에서 足太陽經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靈樞本輸』에서 “三焦下膻, 在於臍中外廉, 名曰委陽, 是太陽絡也, 手少陽經也.”라고 한 것²⁰⁾처럼 足太陽經의 委陽이 手少陽三焦經의 下輸이기 때문이다²¹⁾. 이와 같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13.

17) 八十難: 原鈔本에 ‘八十難’이라고 되어 있으나 ‘八十一難’ 중 ‘一’자가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 盛文堂本, 『黃帝內經太素新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은 모두 ‘八十一難’으로 교정하였다. ‘八十一難’은 『難經』을 말하는데 문장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18) 三輸爲原: 原鈔本에 ‘三’자가 훼손되어 명확치 않으나 뒤 문장에 ‘故第三輸名原’라 한 것을 볼 때 ‘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418. “五藏有六府, 六府有十二原.”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1.

이 楊上善은 三焦를 통하여 原氣가 발로 행하는 것을 足三焦라고 이름하였다.

膻中免反, 腓腸也. 腎間動氣, 足太陽將原氣, 別使三焦之氣, 出足外側大骨下赤白肉際陷中爲原. 上踝五寸, 別入貫膻中, 出委陽, 並太陽之正, 入腹絡膀胱, 下焦即膀胱也. 原氣, 太陽絡於膀胱, 節約膀胱, 使溲便調也. 以此三焦原氣行足, 故名足三焦也.(輸穴本輸)²²⁾

‘膻’은 음이 ‘遄’과 ‘免’의 반절로, 장판지이다. 腎間動氣는, 足太陽이 原氣를 거느려 三焦의 氣를 별도로 부려서 발 바깥쪽 큰 뼈의 아래 赤白肉際의 움푹 꺼진 곳의 가운데로 내보내는데, 原穴이 된다. 복사뼈 위로 5촌 되는 곳에서 갈라져 장판지를 꿰뚫고 들어가 委陽으로 나와 太陽의 정경과 아울러 배로 들어가서 방광에 이어지니, 下焦는 곧 방광이다. 原氣는, 足太陽이 방광에 絡하므로 방광을 조절하고 約束하여 소변을 고르게 한다. 이 三焦의 原氣가 발쪽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足三焦라고 한다.

위에서 足太陽을 따라 내려가는 原氣가 三焦經만의 原氣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先天의 原氣인 腎間動氣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太素傷寒熱病說』에서는 風厥의 증상으로 汗出, 身熱이 있으면서도 厥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역시 足太陽脈이 腎間動氣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腎間動氣, 足太陽所主. 足太陽與足少陰表裏, 故太陽先受邪氣, 循脈而上於頭. 得熱則足太陽上者從之受熱, 卽爲上熱下寒, 以爲厥逆汗出不解煩滿之病也.(傷寒熱病說)²³⁾

21) 김도훈. 三焦經의 하루 경맥 연관성에 대한 고찰. 경락경혈학회지. 2008. 25(4). p.8.

22)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96. “足三焦者, 太陽之所將, 太陽之別也, 上踝五寸, 而別入貫膻中, 出于委陽, 並太陽之正, 入絡膀胱, 約下焦.”

23)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524. “岐伯曰汗出而身熱者風也, 汗出而煩滿不解者厥也, 病名曰風厥.(風熱開於腠理爲汗, 非精氣爲汗, 故身熱不解名爲風也. 煩心滿悶不解, 名厥病也. 有風有厥, 名曰風厥

腎間動氣는 足太陽脈이 주관하는 것이다. 足太陽脈이 足少陰脈과 表裏이므로, 太陽이 먼저 邪氣를 받아 經脈을 쫓아 머리로 올라간다. 열을 얻으면 足太陽脈의 상부가 따라서 열을 받아 곧 上熱下寒이 되어, 厥逆으로 땀이 나도 풀리지 않으면서 煩悶하는 병이 된다.

足太陽脈 이외에 血海로서 五臟六腑로 가는 十二經脈의 바다가 되는 衝脈도 腎間動氣로부터 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臍下の 腎間動氣가 腎間뿐만 아니라 胞에도 있으며 衝脈이 바로 이 胞에서 일어나서 經絡의 바다가 되어 諸陽과 諸精에 기혈을 보내 주기 때문에²⁴⁾ 衝脈이 腎間動氣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衝脈은 十二經脈의 바다이면서 『靈樞逆順肥瘦』에서 “夫衝脈者, 五臟六府之海也, 五臟六府皆稟焉.”이라 하여 五臟六腑에 氣血을 공급하게 되므로 原氣의 근원인 腎間動氣와 연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齊下腎間動氣, 人之生命, 是十二經脈根本. 此衝脈血海, 圖²⁵⁾是五臟六府十二經脈之海也, 滲於諸陽, 灌於諸精, 故五臟²⁶⁾六府皆稟而有之, 是則齊下動氣在於胞也. 衝脈起於胞中, 爲經絡²⁷⁾海, 當知衝脈從動氣生, 上下行者爲衝脈也. 其下行者, 雖注少陰大絡下行, 然不是少陰脈, 故曰不然也.(經脈之三衝脈)²⁸⁾

也.) 問曰願聞之. 答曰巨陽主氣, 故先受邪. 少陰與其爲表裏也, 得熱則上從之, 從之則厥.”

24) 楊上善은 뒤에 이어지는 “夫衝脈者, 五臟六府之海也, 五臟六府皆稟焉. 其上者, 出于煩顛, 滲諸陽, 灌諸精.”의 『內經』 원문에 대하여 “衝脈, 氣滲諸陽, 血灌諸精. 精者, 目中五臟之精.”라고 주석하여 衝脈으로 인하여 氣가 諸陽으로 스며들고 血이 눈에 모이는 五臟의 精으로 흘러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25) 圖: 原鈔本에는 이 글자를 판별하기 힘든데 『黃帝內經太素新校正』에서는 文義로 볼 때 ‘卽’인 것 같다고 하였다.

26) 藏: 原鈔本에는 이 글자가 손상되어 있는데 『黃帝內經太素新校正』에서는 남은 형태로 볼 때 ‘藏’으로 보고 補入하였다. 蕭延平本에도 ‘藏’으로 되어 있다.

27) 絡: 原鈔本에는 이 글자 옆에 작은 글씨로 한 글자가 있는데 판별하기 힘들다. 日本模寫本에는 ‘絡’ 옆에 ‘脈’이注로 달려있다. 蕭延平本에는 ‘脈’으로 되어 있다.

28)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p.175-176. “黃帝曰少陰之脈獨下行, 何也.(足之三陰從足上行, 常見跗上動脈, 謂是足少陰下行動脈, 故致斯問也.) 岐

배꼽 아래 腎間動氣는 사람의 生命으로 十二經脈의 근본이다. 이 衝脈은 血海이니, 곧 五臟六腑, 十二經脈의 바다로서, 모든 陽經에 스며들고 모든 精에 흘러들어가므로 五臟六腑가 모두 이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으니, 이는 곧 배꼽 아래의 動氣가 胞에 있는 것이다. 衝脈은 胞中에서 일어나 경락의 바다가 되니, 마땅히 衝脈이 腎間動氣로부터 생겨나고 위아래로 운행하는 것이 衝脈이 됨을 알아야 한다. 그 아래로 행하는 것은 비록 少陰의 大絡으로 흘러가서 내려가지만 이는 少陰脈이 아니므로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이다.

또한 衝脈은 少陰의 大絡과 함께 足陽明脈의 氣街에서 出하는데 이에 대하여 『靈樞動脈』에서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出於氣街.”라 하였고²⁹⁾, 『素問骨空論』에서도 “衝脈者, 起於氣街, 並少陰之經, 俠齊上行, 至陰中而散.”이라 하였다³⁰⁾. 이에 대하여 『太素九鍼之二五邪刺』에서는 우선 宗氣가 머물러 氣海에 쌓인 것이 腎間動氣이고 이 動氣가 아래로 가서 氣街에 흘러든다고 하였다.

穀入於胃, 其氣清者上注於³¹⁾肺, 濁者下流於胃, 胃之氣上出於口, 以爲噦氣. 肺³²⁾積氣海, 謂腎³³⁾間動氣也. 動氣下者, 注經³⁴⁾氣街, ³⁵⁾明脈³⁶⁾也.(九鍼之二五邪刺)³⁶⁾

伯曰不然.”

-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67.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09.
31) 於: 原鈔本에서는 이 글자가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다. 『黃帝內經太素新校正』에서는 뒤의 ‘濁者下流於胃’를 근거로 ‘於’를 넣었다.
32) 肺積氣海: 原鈔本에서는 이 네 글자가 지워져 알아볼 수 없다. 蕭延平本과 盛文堂本에는 모두 ‘之宗氣留’로 되어 있다.
33) 腎: 原鈔本에서는 알아보기 어렵다. 『黃帝內經太素新校正』에서는 남아있는 모양을 근거로 ‘腎’으로 보았다.
34) 經: 『黃帝內經太素新校正』에서는 文義에 근거하여 ‘於’로 보았다.
35) 明脈也: 原鈔本에는 ‘明’ 위의 두 글자가 전부 지

음식물이 胃로 들어가면 그 맑은 氣는 肺로 올라가고, 탁한 것은 胃로 흘러 내려가니 胃氣가 입으로 나가는 것은 트림이 된다. 肺의 (宗氣는 머물러) 氣海에 쌓이니, 腎間動氣라고 일컫는다. 動氣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氣街로 흘러들어 지나가니 (足陽明脈의 氣이다).

여기서는 宗氣가 氣海에 쌓여서 腎間動氣가 된다고 한 것이 특징이다. 『靈樞刺節眞邪』에서 “宗氣留於海, 其下者, 注於氣街, 其上者, 走於息道.”라 하여³⁷⁾ 아래의 氣街로 내려감을 말하였다. 氣海의 위치는 『靈樞海論』에서 “膻中者, 爲氣之海.”라 한 것³⁸⁾에 대해 『太素人合四海合』에서 楊上善은 “食入胃已, 其氣分爲三道, 有氣上行經隧, 聚於胸中, 名曰氣海... 皆是膻中氣海, 氣之輸也.”라고 注釋을 하였으며³⁹⁾, 『太素經脈之二脈行同異』에서도 “大氣搏而不行, 名爲宗氣, 積於胸中, 命曰氣海.”라 하여 모두 胸中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⁴⁰⁾ 膻下의 氣海穴로 보지는 않았다. 또한 바로 『靈樞邪客』에서 “五穀入於胃也, 其糟粕津液宗氣, 分爲三隧, 故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脈, 而行呼吸焉.”이라 하였으므로 腎間動氣의 유래는 楊上善의 설명에 의하면 水穀之氣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楊上善은 腎間動氣의 原氣가 關節 즉 溪谷 사이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素問痿論』에서

위져 알 수 없다. ‘也’ 위 두 글자는 모양이 많이 남아있는데, 『黃帝內經太素新校正』에서는 그 중 두 번째 글자가 ‘氣’자와 비슷하다고 보고, 文義에 근거하여 ‘足陽明脈之氣也’라고 보았다.

- 36)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p.459-460. “宗氣留於海, 其下者注於氣街.”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16.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74.
39)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3.
40) 『靈樞五味』에서 “其大氣之搏而不行者, 積於胸中, 命曰氣海.”라 한 것에 대해 楊上善은 「攝生之二調食」에서 “穀化爲氣, 計有四道. 精微營衛, 以爲二道, 化爲糟粕及濁氣并尿, 其與精下傳, 復爲一道, 搏而不行, 積於胸中, 名氣海, 以爲呼吸, 復爲一道, 合爲四道也.”라 하여 기가 운행하는 네 가지 길을 설명하였다.

“衝脈者，經脈之海也，主灌滲谿谷，與陽明合於宗筋。陰陽總宗筋之會，會於氣街。”라고 하여⁴¹⁾ 衝脈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肉之大會爲谷，小會爲谿。肉分之間，谿谷之會，腎間動氣爲原氣，在谿谷間，故冬病在也。(陰陽陰陽雜說)⁴²⁾

肉이 크게 모이는 곳은谿이고, 작게 모이는 곳은 谿이며, 分肉의 사이와 계곡의 모임에 腎間動氣가 原氣가 되어 계곡 사이에 있으니, 그러므로 겨울의 병은 谿谷에 있다.

衝脈은 또한 陽明과 더불어 宗筋에 합하는데 『太素設方知湯藥』에서 “莖微動，中四壺.”의 原文에 대하여 “腎間動氣得和，則陰莖微動，四竭得生，故本標得，邪氣服.”라 하여⁴³⁾ 腎間動氣가 조화로우면 陰莖이 약간 움직이고 이에 고갈된 네 臟이 살아나 邪氣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楊上善은 앞에서 말한 대로 左腎은 藏志하고 右命門은 藏精한다고 하였는데, 志가 손상되어 기억을 할 수 없는 경우 腎間動氣가 쇠해서 온 것으로 하여 腎間動氣가 左腎의 藏志 작용에 관여함을 설명하였다.

志者，記也，腎之神也。腎間動氣，人之生命，動氣衰矣，則志神去之，故死也。(傷寒熱病說)⁴⁴⁾

志는 기억하는 것이니, 腎의 神이다. 腎間動氣는 사람의 생명이므로, 動氣가 쇠약해지면 곧 志神이 떠나므로 죽게 된다.

그러나 腎間動氣는 氣뿐만 아니라 나아가 精의 생성에도 관여하는데 精은 곧 形을 盛하게 하여 병

이 비록 나타나더라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腎間動氣가 右命門이 藏精하는 것에도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말한다.

腎間動氣，人之生命，故氣之和則精生，精生則形盛，形精既盛則骨肉相親，於是大氣平和，是爲病形雖成，療之有驗。(設方-知湯藥)⁴⁵⁾

腎間動氣는 사람의 생명이므로 氣가 조화로우면 精을 생하고, 精이 생하면 形이 성해지니, 形과 精이 이미 성해지면 骨肉이 서로 친해져서 이에 大氣가 고르고 조화롭게 되니, 이것이 病形이 비록 이루어졌으나 치료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진단법에서는 腎間動氣의 성쇠에 따라 虛實死生을 결단할 수 있는데 楊上善은 이를 脈診法 가운데 腎臟의 眞藏脈과 연결시켰다. 즉, 비록 腎이 병 들었다 하더라도 腎間動氣가 강하면 眞藏脈이 드러나지 않아서 당장 죽을 상황은 아니라고 하였다. 腎間動氣의 盛衰를 실제 임상에서 진단하는 방법은 『難經』 이후 임상에서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았으며 明代 張介賓의 『景岳全書傷寒典動氣』에서 배꼽 주변의 動氣를 촉진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병리적 현상을 진단하는 것이며⁴⁶⁾ 先天의 原氣인 腎間動氣의 盛衰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일부만 언급되었다⁴⁷⁾.

腎府足太陽脈，循肩髀內，故腎病，肩隨內藏消瘦也。又兩肩垂下，曰隨。腎間動氣，五藏六府十二經脈之原，故腎病，動運皆衰也。腎間動氣強大，故眞藏脈未見者，腎氣未見者，腎氣未是甚衰，所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66.

42)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55. “病在於谿谷，其味鹹，其類水，其畜豕，其穀豆.”

43)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403.

44)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523. “狂言者是失志，失志者死.”

45)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403. “故精自生，形自盛，骨肉相保，巨氣適平. 黃帝曰善哉.”

46)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69. “蓋動氣之在臍傍者，皆本於下焦之陰分，凡病關格勞損者多有此證，而尤於瘦薄者易見之。其動之微者則止於臍傍上下，其動之甚者則連及虛裏心脅，真若春春連續而混身皆振動者。”

47) 본격적으로 腹部의 動氣를 진단하여 腎間動氣의 盛衰를 파악하는 방법은 日本의 難經派腹診法에서 일부 개발되어 임상에 활용되었다.

以期至一年。腎氣衰甚，眞藏即見，故與之死日之期也。(診候之一眞藏脈形)⁴⁸⁾

腎의 腑인 足太陽脈이 어긋죽지 안쪽을 따라가므로, 신이 병들면 어깨가 內臟과 함께 수척해진다. 또 양어깨가 아래로 처지는 것을 '隨' 라 하기도 한다. 腎間動氣는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의 근원이므로, 腎이 병들어 동작과 운행이 모두 쇠약해졌으나 腎間動氣가 強大하므로 眞藏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 이는 腎氣가 아직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신기가 심하게 쇠약한 것은 아니므로 1년이 되어 죽을 것을 기약하는 것이다. 腎氣가 몹시 쇠약하면 眞藏脈이 곧 나타나므로 죽을 날짜를 기약할 수 있다.

腎間動氣는 비록 臍下에 위치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한 대로 楊上善은 胸中의 氣海에 쌓인 氣도 腎間動氣에 포함시켜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楊上善은 上焦 心の 작용과 下焦 腎間動氣의 작용을 대비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心도 原氣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본 것이다.

腎者爲水在冬，居於太陰，最下，故爲裏也。心爲五藏部主，故得稱部，腎間動氣，內理五藏，故曰裏也。(設方知鍼石)⁴⁹⁾

腎은 水로 겨울에 해당하고 太陰에 거처하여 가장 아래에 있으므로 안이 된다. 心은 五臟을 관할하여[部] 다스리는 주인이 되므로 '部' 라고 칭하였고, 腎間動氣는 안으로 五臟을 다스리므로[理] '裏' 라고 하였다.

『太素設方知官能』에서는 臍中의 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밀어올려서 성하게 하고 腎間動氣가 부족할 경우에는 氣를 쌓아서 순조롭게 하라고 하였다. 이것도 上焦와 下焦의 氣를 서로 대비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上氣不足，謂臍中氣少，可推補令盛。揚，盛也。下氣不足，謂腎間動氣少者，可補氣聚。積，聚也。從，順也。三十五也。(設方知官能)⁵⁰⁾

上氣가 부족하다는 것은 臍中의 氣가 적은 것을 말하니, 밀어 올려서 補하여 盛하게 한다. '揚' 은 성한 것이다. 下氣가 부족하다는 것은 腎間動氣가 적은 것을 말하니, 補하여 기가 모이게 한다. '積' 은 모으는 것이고 '從' 은 따르는 것이다. 서른다섯째이다.

Ⅲ. 考 察

腎間動氣說을 처음 제시한 『難經』과 楊上善이 지은 『黃帝內經太素』는 저작 연대의 차이가 수백년 정도 있으나 『太素』에 담긴 楊上善 注釋의 내용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들을 담고 있으며 또한 『太素』가 亡佚되어 후대의 의가들이 비교적 『太素』의 영향을 적게 받은 점들을 고려하면, 『太素』에 나타난 腎間動氣說에 대한 분석은 『難經』에 담긴 주요 이론들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難經』의 腎間動氣說에 대한 연구는 주로 命門學說 또는 후대의 相火學說과 연관되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腎間動氣가 선천의 原氣로서 兩腎 간에 자리 잡고 原氣가 선포되는 근원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 醫家들의 큰 이견이 없었다. 그에 비하여 命門이 右腎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腎間에 위치하여 原氣의 근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인지, 후대에 相火學說이 발전하면서 原氣와 火의 관계 속에서 命門 또는 三焦의 기능과 작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등 주로 命門과 相火, 三焦 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단지, 『黃帝內經太素』에 담긴 楊上善의 注釋 가운데 腎間動氣를 언급한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難經』의 腎間動氣說이 어떻게 『太素』

48)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86. "大骨枯槁, 大肉陷下, 肩隨內消, 動作益衰, 眞藏未見, 期一歲死, 見其眞藏, 乃予之期日."

49)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397. "心部於表, (心者爲火在夏, 居於太陽, 最上, 故爲表.) 腎治於裏."

50)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406. "上氣不足, 推而揚之. 下氣不足, 積而從之."

』에 수용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전의 『太素』에 관한 연구 대상 가운데 楊上善의 腎間動氣에 대한 관점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이유는, 命門, 相火, 三焦 관련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太素』의 腎間動氣說에 대한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太素輸穴變輸』에서 “人之命門之氣，乃是腎間動氣。”라고 한 것을 두고 『難經』 이래 최초로 命門과 腎間動氣를 연결시킨 것으로서 明代 腎間命門說의 시초로 볼 수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命門學說에 대한 여러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 결과이고, 이 문장이, 楊上善이 命門의 개념을 腎間動氣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근거가 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命門의 氣가 腎間動氣라고 해서 命門이 腎間에 있다고 확실히 해석되지는 않으며, 命門으로 나오는 氣가 곧 腎間動氣로부터 근원한 氣라고도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楊上善은 『太素藏府之一五藏精神』과 『太素藏府之一藏府氣液』에서 각각 “人腎有二，左爲腎藏，右爲命門.”，“腎在二枚，左箱爲腎藏志也，在右爲命門藏精.”라고 하여 『難經』의 左腎右命門說을 고수하였다.

楊上善은 『難經』에 나오는 腎間動氣, 命門, 三焦 등의 原氣 관련 개념들을 대체로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또는 새롭게 설명을 추가한 것들이 있다. 左腎은 藏志를 하고 右命門은 藏精을 한다는 주장은 『難經』에서 “命門者，諸神精之所舍.”라고 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

추가된 내용 가운데에는 腎間動氣를 衝脈과 연결시킨 것이 중요하다. 經脈의 바다이면서 五臟六腑 전체에 氣血을 대주는 衝脈이 腎間動氣와 관련이 많다고 본 것이다. 물론 『難經』에서 三焦를 原氣之別使라 하여 原氣를 운행, 선포하는 주체로 보았기 때문에 楊上善도 手少陽三焦脈의 하부 經脈을 足三焦라 명명하고 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足太陽이 腎間動氣를 주관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氣血을 선포하는 기능을 가진 衝脈이 더욱 腎間動氣와 밀접하다고 본 것이다. 楊上善은 “是則齊下動氣在於胞也，衝脈起於胞中，爲經絡海，當知衝脈從動氣

生，上下行者爲衝脈也.”이라 하여 衝脈이 바로 腎間動氣로부터 생겨 상하로 운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臍下의 腎間動氣가 胞에도 있다고 한 것이 특이하다. 또한 衝脈은 氣街에서 出하면서 足陽明脈과 연결되어 水穀의 氣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楊上善은 水穀으로부터 나온 濁氣는 아래의 胃로 내려가고 위로 肺로 올라간 맑은 기운이 膻中의 氣海에 쌓였다가 宗氣를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腎間動氣이며 이 氣가 다시 아래의 氣街로 내려온다고 하였다. 앞에서는 衝脈이 腎間動氣로부터 생겨서 올라온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上焦의 氣海에서 쌓였다가 아래의 氣街로 내려온다고 하였다. 氣街는 곧 衝脈이 올라와 出하는 곳이므로 宗氣로부터 내려온 腎間動氣는 氣街를 지나 兩腎 間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로가 腎間動氣가 만들어져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면 腎間動氣의 유래는 水穀之氣 혹은 宗氣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難經三十一難』에서 “故名曰三焦，其府在氣街”이라 하여⁵¹⁾ 유일하게 原氣之別使인 三焦와 氣街를 함께 언급하였는데 이와 관련된성을 앞으로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밖에 腎間動氣가 溪谷 間에 있거나 腎間動氣가 조화를 얻으면 陰莖이 微動한다는 설명들도 모두 衝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腎間動氣가 上下에 모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腎間動氣가 상하로 운행하는 것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데 楊上善은 “心爲五藏部主，故得稱部，腎間動氣，內理五藏，故曰裏也.”라 하여 心과 腎의 작용을 대비하여 설명하였고, “上氣不足，謂膻中氣少，可推補令盛... 下氣不足，謂腎間動氣少者，可補氣聚.”라 하여 치료에 있어서도 上下의 調和를 맞추어서 氣를 보하도록 하였다.

진단에 있어서는 腎間動氣를 眞藏脈과 연결시켜서 보았는데 “腎間動氣強大，故眞藏脈未見者，腎氣未見者，腎氣未是甚衰，所以期至一年.”라 하여 腎間動氣가 강하면 眞藏脈이 나타나지 않아서 당장 죽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腎間動氣는 左腎, 右命門보다 근원적인 개념이므로 腎間動氣가 쇠약해지면 志를 藏하는 腎이 약해져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51) 滑壽. 難經本義. 臺南. 世一書局. 1981. p.74.

반대로 腎間動氣가 조화를 이루면 命門에서 갈무리 되는 精이 生하여 形도 盛하게 된다고 하였다. 楊上善은 또한 이러한 先天의 動氣를 性命의 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종합해보면, 『難經』의 腎間動氣說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면서도 衝脈을 중심으로 原氣의 운행을 연결시킨 것은, 자세한 『內經』에 나오는 三焦 개념이 주로 上中下로 분리되어 설명되어 있고 五臟六腑와 十二經脈 모두에 氣를 보내는 것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기능을 하는 衝脈을 주로 연결시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腎間動氣에서 나온 原氣의 上下 운행과 生成과 관련하여 上焦 氣海의 宗氣를 언급하였고, 心和 腎 사이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腎間動氣와 관련된 臟腑와 經絡의 범위를 넓게 보았다. 그밖에 脈診에서 腎間動氣를 眞藏脈의 발현과 연결시킨 것도 腎間動氣의 임상 활용에 관심이 많았음을 짐작케 한다.

IV. 結 論

본 연구에서 『黃帝內經太素』에 담긴 楊上善의 注釋 가운데 腎間動氣를 언급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難經』의 腎間動氣說이 어떻게 『太素』에 수용되고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楊上善의 『太素』의 注釋에서 『難經』에서 제시한 대로 臍下의 腎間動氣가 原으로서 人之生命이며 十二經之根本이고, 三焦가 그것의 別使가 되어 原氣를 운행시킨다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難經』에서 말한 左腎右命門說의 命門 개념도 대체로 따르고 있다.

2. 楊上善은 腎間動氣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十二經脈과 五臟六腑의 바다가 되는 衝脈이 腎間動氣로부터 生하여 上下로 운행하여 氣를 선포하며, 나아가 반대로 上焦 膻中의 氣海에 쌓인 宗氣가 바로 腎間動氣로서 아래로 衝脈이 出하는 氣街로 내려오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腎間動氣의 上下 운행 및 生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楊上善은 腎間動氣의 上下의 心腎 관계에 있어서, 心은 五臟을 관할하는 주인이고 腎間動氣는 안으로 五臟을 순리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서로의 협력을 중시하였다. 또한 上焦 端重의 氣와 下焦의 腎間動氣를 調和를 맞추어서 氣를 補하는 治법을 제시하였다.

4. 楊上善은 腎間動氣의 성쇠를 맥진의 眞藏脈 발현과 연결시켜서 보았는데 腎間動氣가 강하면 眞藏脈이 나타나지 않아서 당장의 죽음을 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腎間動氣가 쇠약해지면 志를 藏하는 腎이 약해져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腎間動氣가 조화를 이루면 命門에서 갈무리되는 精이 生하여 形도 盛하게 된다고 하여 腎間動氣를 左腎, 右命門을 조절하는 근원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5. 楊上善이 『難經』의 腎間動氣說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면서도 衝脈을 중심으로 原氣의 운행을 주로 설명한 이유는 『內經』에 나오는 三焦 개념보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기능을 하는 衝脈을 연결시켜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原氣의 上下 운행 및 生成과 관련하여 氣海의 宗氣를 언급하고, 心和 腎 사이의 조화를 추구한 것은 腎間動氣와 연결된 臟腑, 經絡의 범위를 넓힌 것이며, 脈診에서 眞藏脈의 발현과 腎間動氣를 연결시킨 것도 그것의 임상 활용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1. Zhang JB. Jingyuequansh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1.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 Sago MM. Huangdineijingsuwenxinjinjiaozheng. Osaka. Medical Studies of Huangdineijing. 2009. 左合昌美.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大阪. 讀古醫書岐黃會. 2009.
3. Qian CC. Huangdineijingsuwenxinjinjiaozheng. Beijing Xueyuanchubanshe. 2006.

-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4. Hong WS. Jeonggyohwangjenaegyong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5. Hong WS. JeonggyohwangjenaegyongYou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6. Huashou. Nanjingbenyi. Tainan. Shiyishuju. 1981.
滑壽. 難經本義. 臺南. 世一書局. 1981.
7. Kim DH. A Study on the Association of Samcho-gyeong(Triple Energizer Meridian) and the Lower Branch of Meridian system. Journal of meridian & Acupoint. 2008. 25(4).
김도훈. 三焦經의 하부 경맥 연관성에 대한 고찰. 경락경혈학회지. 2008. 25(4).
8. Kim JH. Integrating Study of Kidney on Left & Life Gate on Right and Moving Energy between two kidneys.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6(4).
金振鎬.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9. Sheng MX, Chu QG.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Vital Gate and Movement Qi between kidneys in Nanjing. Clinical Journal of TCM. 2012. 24(1).
盛明旭, 儲全根. 淺析難經의命門與腎間動氣的關係. 中醫藥臨床雜誌. 2012. 24(1).
10. Lee SH. A Study on the distinctive feature of Hwangjenaegyongtaeso and Yang Sang-seon's Medical Theory. Graduate School of Dong Eui University. 2009.
李相協. 黃帝內經太素의 特徵 및 楊上善의 醫學理論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大學院. 2009.
11. Qian ZN. A Study on the academic thought of Hangdineijingtaisu. Graduate School of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14
錢澤南. 黃帝內經太素學術思想研究. 北京中醫藥大學大學院. 2014.
12. Zhang L, Liu YY, Guo YX. Analysis of Relation of Kidney Qi and Primitive Qi, Circle of Life Qi, Movement Qi between Kidney and Real Qi. Liaoning Journal of TCM. 2015. 42(10).
張磊, 劉迎迎, 郭偉星. 腎氣與元氣, 原氣, 生氣, 腎間動氣, 真氣關聯辨析. 遼寧中醫雜誌. 2015. 42(10).